2021년 8-2

KIET 경제산업동향

2021. 8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 1

1. 해외경제 ---- 3

2. 실물경제 ---- 6

3. 국내금융 ---- 8

4. 산업별 동향 ---- 10

5. 고용 ---- 12

6. 수출입 ---- 13

< 부록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현황 및 경쟁 구도 ----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1.8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18

< 요 약 >

□ 해외경제 : 일본 2분기중 전기비 0.3%, 유로존 2.0% 성장률 기록

○ 미국은 7월중 실물·체감지표들의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고용 회복과 인플레 심화 등이 가시화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에 관심이 고조

○ 일본은 지난 2분기중 소비와 투자가 동반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률(전기비 0.3%)을 기록하고, 유로존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내 주요국들의 플러스 성장에 힘입어 전기비 2.0% 성장

○ 중국은 7월 실물지표들이 현저한 둔화세를 나타내는 등 하반기 들어 경제지표들이 부진함에 따라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 달러화는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속에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서의 강세가 지속

○ 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지속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달러화 강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이후 최저치 수준까지도 일시 하락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전기비 0.7%, 6월 전산업생산 1.6% 증가

○ 올 2분기 국내 실질GDP는 소비 확대 영향에도 투자 둔화와 수출 감소 등에 따라 전기비 성장률이 0.7%로 하락, 전년동기비 기준 5.9% 증가

- 지난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동반 증가세로 전환된 데 힘입어 전월비 1.6%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

□ 금 융 : 7월 기업대출·가계대출 동반 확대, 8월 중순(8.11~8.25일) 금리 및 원/달러 상승

○ 7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의 증가 전환과 중소기업 대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전체 규모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지속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한은의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큰 폭 상승한 이후,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하락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장비 등 다수 업종에서 상당 폭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2.1% 증가

- 제조업ICT와 중공업 생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 경공업은 견조한 증가세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에서 감소 폭이 축소되고, 도소매, 운수·창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전월보다 증가한 데 힘입어 4.9%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5.3% 증가, 전월비 기준 7.5% 증가

□ 고 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0% 증가

○ 지난 7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의 취업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하락세(2.2% → 2.0%)

□ 수출입 : 6월 수출 +29.6%, 수입 +38.1%, 무역흑자 18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9.6% 증가한 554억 달러, 수입은 38.1% 증가한 537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18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로는 글로벌 경기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석유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약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

1. 해외경제

□ 미국 : 7월 경제지표 혼조 지속,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에 관심 고조

○ 7월중 생산 확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부문간 혼조세 속에 체감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엇갈린 모습. 고용 회복과 인플레 심화 등이 가시화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에 관심이 고조

- 산업생산이 IT생산 정체에도 자동차·부품(전월비 11.2%) 생산이 큰 폭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에, 소매판매는 자동차·부품(-3.9%)을 비롯해 다수 제품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감소세로 전환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고용 확대에도 신규 수주와 생산이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가 2020.3월 이후 최고치(160.3)로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

-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제조업·서비스업에서 동반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도 지난 2020.5월부터 15개월 연속 상승 지속

- 올 들어 고용 회복과 인플레 심화 등이 가시화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델타 변이 확산 등이 변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GDP,연율) (전년동기비, %)	2.3	-3.4	4.5 (-2.3)	6.3 (0.5)	6.5 (12.2)				
산업생산	-0.8	-7.2	2.0	1.0	1.5	0.0	0.8	0.2	0.9
(IT생산)	(3.9)	(7.1)	(4.6)	(3.2)	(2.6)	(0.6)	(0.9)	(0.4)	(0.0)
내구재수주	3.5	-13.6	4.7	5.5	3.0	-0.7	3.2	0.8	-0.1
소매판매	3.3	0.3	0.4	8.0	6.5	0.9	-1.4	0.7	-1.1
소비자물가	1.8	1.2	0.6	0.9	2.0	0.8	0.6	0.9	0.5
실업률(%)	3.7	8.1	6.8	6.2	5.9	6.1	5.8	5.9	5.4
무역수지(10억U$)	-576.3	-676.7	-196.8	-212.8	-215.8	-69.1	-71.0	-75.7	-
ISM 제조업지수[1]	51.3	52.5	59.1	61.4	60.8	60.7	61.2	60.6	59.5
소비자신뢰지수[2]	128.3	100.9	93.4	96.1	62.3	117.5	120.0	128.9	129.1
경기선행지수[3]	111.6	106.1	109.0	110.6	114.1	113.0	114.4	115.0	116.0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6월 생산·소비 동반 증가, 2분기 전기비 0.3% 성장률 기록

○ 6월중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실업률도 소폭 하락하는 등 실물지표들이 예상외 호조세를 나타내고, 경기선행지수가 2014.2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 지난 2분기중 소비(전기비 0.8%)와 투자(1.7%)가 전분기와 달리 동반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률(0.3%)을 기록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0	-4.7	2.8	-0.9	0.3				
광공업생산	-2.7	-10.6	5.7	2.8	1.2	1.7	2.9	-6.5	6.5
민간기계수주	-0.9	-8.5	12.9	-5.3	4.6	3.7	0.6	7.8	-1.5
소매판매	0.1	-3.5	0.1	0.4	-2.1	1.2	-4.6	-0.3	3.1
소비자물가	0.5	0.0	-0.6	0.5	0.1	0.2	-0.4	0.3	0.3
실업률(%)	2.4	2.8	3.0	2.8	2.9	2.6	2.8	3.0	2.9
무역수지(10억엔)	-1,668	563	1,959	542	439	658	249	-193	384
경기선행지수[1)]	93.9	89.0	96.6	100.0	103.5	102.4	103.8	102.6	104.1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7월 경제지표 둔화, 주요 기관 올해 中 성장률 전망치 하향

○ 7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과 수출 증가율이 상당 폭 떨어지면서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수준에서 완만한 흐름. 하반기 들어 경제지표 실적이 부진한 데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한 영향 등으로 인해 주요 기관들이 올해 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0	2.3	6.5	18.3	7.9				
산업생산	5.7	2.8	7.1	24.6	9.0	9.8	8.8	8.3	6.4
고정투자(누계기준)	5.4	2.9	2.9	30.3	12.6	19.9	15.4	12.6	10.3
소매판매	8.0	-3.9	4.6	34.0	14.1	17.7	12.4	12.1	8.5
소비자물가	2.9	2.5	0.1	0.0	1.1	0.9	1.3	1.1	1.0
수 출(달러화기준)	0.5	3.6	16.9	45.6	30.8	32.3	28.0	32.2	19.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6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 2분기 역내 성장률 전기비 2.0%

○ 6월중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부문간 혼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경기체감지수가 2000.5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 올 2분기중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내 주요국들이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 성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0.6	-0.3	2.0				
산업생산	-1.4	-8.4	4.4	1.1	-0.1	0.6	0.7	-1.1	-0.3
소매판매	2.4	-1.0	-1.2	-1.3	3.4	4.0	-3.8	4.1	1.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0.3	1.1	1.8	1.3	1.6	2.0	1.9
무역수지(10억유로)	223.0	234.9	75.8	69.3	39.5	17.9	13.3	13.8	12.4
경기체감지수[1)]	107.3	88.7	89.8	92.6	109.6	97.8	107.2	110.0	111.6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 유가 하락세

○ 달러화는 8월 들어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월의 하락분을 만회하고,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유로화 대비 현저한 강세를 보이고, 엔화 대비로는 보합세

○ 유가는 8월 들어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세가 이어지는 영향에도 델타 변이 확산 지속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달러화 강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인 60달러대 초중반 수준까지도 하락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0		2021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25일
엔/달러	104.31	103.25	104.68	106.57	110.72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달러/유로	1.1927	1.2216	1.2136	1.2075	1.1730	1.2020	1.2227	1.1858	1.1870	1.1772
미 국채 (10년만기)	0.84	0.91	1.07	1.40	1.74	1.63	1.59	1.47	1.22	1.34
WTI유	45.3	48.5	52.2	61.5	59.2	63.6	66.3	73.5	74.0	68.4
두바이유	46.6	50.2	54.3	63.1	62.4	64.5	66.6	73.0	73.3	68.3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0.7% 성장, 6월 전산업생산 1.6% 증가

○ 올 2분기 국내 실질GDP는 소비 확대 영향에도 투자 둔화와 수출 감소 등에 따라 전기비 성장률이 0.7%로 하락, 전년동기비 기준 5.9% 증가

- 민간소비가 전기비 3.5% 증가하면서 전분기(1.2%)보다 크게 확대된 반면에, 설비투자가 0.6%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도 2.5% 감소한 데다, 수출도 2.0% 감소하는 등 전분기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시현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GDP성장률	2.2	-0.9*	-1.1* (1.1*)	1.9* (1.7*)	5.9** (0.7**)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6.6* (-1.3*)	1.2* (1.2*)	3.6** (3.5**)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6.1* (-0.6*)	12.4* (6.1*)	12.2** (0.6**)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2.9* (3.5*)	-1.8* (1.3*)	-1.5** (-2.5**)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1.5 (1.6)	2.7 (1.7)	7.3* (0.4*)	5.8 (0.9)	8.5 (-1.3)	7.0* (0.0*)	6.7* (1.6*)
광공업생산지수	0.4	-0.4	0.0 (2.9)	4.4 (3.4)	13.0* (-1.0*)	4.6 (-0.7)	12.2 (-1.9)	14.9* (-1.0*)	11.9* (2.2*)
제조업생산지수	0.5	-0.3	-0.1 (3.1)	4.4 (3.4)	13.4* (-1.1*)	4.7 (-0.8)	12.8 (-1.9)	15.3* (-1.2*)	12.1* (2.3*)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0 (0.9)	2.2 (0.7)	5.7* (1.7*)	7.8 (1.3)	8.3 (0.2)	4.2* (-0.4*)	4.9* (1.6*)
소매판매액지수	2.4	-0.2	-1.2 (0.9)	6.4 (1.7)	4.4* (2.7*)	11.1 (2.5)	8.7 (2.1)	3.1* (-1.8*)	1.6* (1.4*)
설비투자지수	-5.7	6.0	2.8 (0.8)	11.9 (6.9)	12.4* (0.4*)	9.6 (0.1)	16.4 (3.1)	10.9* (-2.9*)	10.0* (-0.2*)
건설기성액	-2.3	-4.1	-5.3 (2.5)	-7.2 (-3.6)	-4.4* (-1.6*)	-5.6 (0.4)	-3.6 (-2.6)	-6.9* (-3.0*)	-3.1* (2.0*)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0	112.3	113.6	114.4	116.6*	115.1	116.4*	116.7*	116.9*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1	98.7	99.4	99.8	101.3*	100.2	101.2*	101.4*	101.4*
선행종합지수(2015=100)	114.6	119.5	122.5	124.7	127.1*	125.3	126.3*	127.2*	127.9*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5	100.5	101.9	102.9	104.1*	103.2	103.7*	104.1*	104.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지난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동반 증가세로 전환된 데 힘입어 전월비 1.6%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

- 광공업생산은 제조업에서 증가세(전월비 2.3%)를 회복함에 따라 전월비 2.2%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2개월 만에 증가(1.6%)

- 소매판매는 내구재(-1.0%) 판매 감소에도 불구, 준내구재(5.8%)와 비내구재(1.0%) 판매가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비 1.4% 증가한 반면에, 설비투자는 기계류(-1.5%) 감소와 운송장비(3.3%) 증가로 전월비 0.2%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함에도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와 서비스업생산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0.3%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도 건설수주액이 감소한 영향에도 경제심리지수와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0.6% 상승(15개월 연속 상승세)

□ 물가 : 7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7% 상승, 전년동월비 7.1% 상승

○ 7월 소비자물가는 주택·수도·전기·연료(전월비 -1.3%)가 비교적 크게 하락한 영향에도 식료품·비주류음료(-0.1%)가 소폭 하락에 그치고, 교통(1.5%)과 음식·숙박(0.4%) 등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2% 상승(전년동월비 2.6%)

○ 7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전월비 1.5%)에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공산품(1.0%)과 서비스(0.4%)도 전월비 상승폭이 동반 확대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상승률이 0.7%로 확대(전년동월비 7.1%, 2011.6월 이후 최고치)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	0.4	0.5	0.6 (0.6)	0.4 (0.1)	1.1 (1.2)	2.5 (0.5)	1.5 (0.1)	2.3 (0.2)	2.6 (0.1)	2.4 (-0.1)	2.6 (0.2)
근원물가	0.9	0.7	0.8 (0.2)	0.7 (0.0)	0.9 (0.6)	1.4 (0.6)	1.0 (0.1)	1.4 (0.3)	1.5 (0.3)	1.5 (0.1)	1.7 (0.1)
생산자물가	0.0	-0.5	-0.6 (1.0)	-0.2 (0.2)	2.4 (2.6)	6.4 (2.5)	4.1 (1.1)	6.0 (1.0)	6.6 (0.5)	6.6 (0.5)	7.1* (0.7*)
근원물가	0.1	-0.1	-0.2 (0.8)	0.5 (0.5)	2.4 (2.0)	6.0 (2.7)	3.8 (0.9)	5.6 (1.2)	6.2 (0.6)	6.4 (0.5)	6.6* (0.5*)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7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동반 확대

○ 7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중소기업 대출도 전월보다 증가세가 더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폭이 상당폭 확대
(21.6월 +5.1조원 → 21.7월 +11.3조원, 대기업 +2.3조원, 중소기업 +9.1조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의 요인으로 증가 전환

-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 회사채는 견조한 투자수요 등으로 인해 순발행 기조가 유지되었으나, 만기도래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그 규모가 축소
(21.6월 +2.8조원 → 21.7월 +1.5조원)

○ CP는 순발행 규모가 전월보다 약간 더 확대
(21.6월 +0.1조원 → 21.7월 +0.9조원)

○ 주식발행은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21.6월 +2.4조원 → 21.7월 +1.8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7월말 잔액
	1~7월	7월	1~7월	7월	1~7월	5월	6월	**7월**	
■ 은행 원화대출	29.2	1.5	86.1	8.4	57.1	5.7	5.1	**11.3**	1,033.5
(대 기 업)	-0.3	-1.1	26.1	1.9	3.6	-0.8	-1.1	**2.3**	175.4
(중소기업)	29.6	2.6	60.0	6.4	53.5	6.5	6.1	**9.1**	858.1
〈개인사업자〉	13.4	2.0	31.3	2.6	23.7	2.3	3.2	**4.2**	409.7
■ 회사채 순발행	12.8	3.4	12.2	1.5	15.1	-0.2	2.8	**1.5**	..
■ CP 순발행	4.8	1.2	7.9	0.5	8.9	-0.7	0.1	**0.9**	37.5
■ 주식발행	3.6	0.6	4.5	2.1	16.5	3.2	2.4	**1.8**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7월중 금융시장 동향).

○ 7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전월비 증가 규모가 모두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 규모 역시 전월보다 확대
(21.6월 +6.3조원 → 21.7월 +9.7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집단대출 취급도 지속된 영향 등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6월 +5.1조원 → 21.7월 +6.1조원)

- 기타대출도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
(21.6월 +1.3조원 → 21.7월 +3.6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7월말 잔액
	1~7월	7월	1~7월	7월	1~7월	5월	6월	**7월**	
은행 가계대출	27.1	5.8	48.2	7.6	51.4	-1.6	6.3	**9.7**	1,040.2
■주택담보대출	22.2	3.7	36.2	4.0	36.5	4.0	5.1	**6.1**	758.4
■기타대출	5.1	2.2	12.1	3.7	14.9	-5.5	1.3	**3.6**	280.8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7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8월 중순(8.11~8.25일) 금리 & 원/달러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8월 들어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다, 한은의 금통위(8.26일)를 앞두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인해 상승
(8.11일 1.42% → 8.25일 1.44%, +0.02%p)

○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이 이어지면서 큰 폭 상승(8.20일 1,179.6원, 2020.9월 이후 최고치)하고,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하락
(8.11일 1,156.4원 → 8.25일 1,168.1원, +11.7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9	2020			2021				
	4/4	1/4	2/4	3/4	4/4	1/4	2/4	7월	8.25일
국고채(3년)	1.36	1.07	0.84	0.85	0.98	1.13	1.45	1.42	1.44
회사채(3년,AA-)	1.94	2.08	2.25	2.19	2.21	2.06	1.97	1.85	1.86
CD(91일)	1.53	1.10	0.79	0.63	0.66	0.75	0.68	0.70	0.77
CP(91일)	1.69	2.20	1.51	1.11	1.09	1.00	0.97	0.97	0.97
원/달러	1,156.4	1,217.4	1,203.0	1,169.5	1,086.3	1,131.8	1,126.1	1,150.3	1,168.1
원/100엔	1,063.5	1,130.8	1,116.1	1,112.1	1,054.3	1,027.3	1,022.1	1,048.5	1,064.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6월중 전년동월비 ＋12.1%, 전월비 ＋2.3%

○ 제조업생산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기타운송장비(전년동월비 -12.2%)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25.5%), 자동차(23.5%), 기계장비(15.9%), 화학제품(16.2%) 등 다수 업종이 상당 폭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2.1%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5.6%)와 중공업(13.8%)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공업(4.9%)은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는 전자부품(-0.6%), 통신방송장비(-8.9%), 기타운송장비(-5.3%), 석유정제(-3.9%)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8.6%), 자동차(6.4%), 기계장비(1.1%), 화학제품(1.2%)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2.3%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5.0)는 금속가공과 전자부품 등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를 비롯해 기계장비와 자동차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를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월비 1.4%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 0.1%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1.8%로 전월보다 0.9%p나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증가 폭이 더욱 확대(5.9% → 11.8%, 계절조정 기준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역시 감소세가 확대(-3.9% → -5.2%)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9%로 전월보다 0.6%p나 상승

□ 서비스업생산 : 6월중 전년동월비 ＋4.9%, 전월비 ＋1.6%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전년동월비 -0.5%)에서 전월보다 감소 폭이 축소되고, 도소매(3.9%)와 운수·창고(9.4%), 전문·과학·기술서비스(3.2%) 등에서 전월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전체 기준 4.9%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도 도소매(1.6%)와 운수·창고(1.0%), 금융·보험(3.2%), 전문·과학·기술서비스(1.9%), 교육(0.3%) 등 전월에 감소세를 보인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데 힘입어 2개월 만에 다시 증가(1.6%)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5.3%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7.5%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7	106.3	112.9	109.8	114.0	114.0	111.2	116.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0.0	4.4	13.0	12.2	14.9	11.9	2.2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6	106.3	112.9	109.1	114.6	114.6	111.8	117.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0.1	4.4	13.4	12.8	15.3	12.1	2.3
섬 유	135.0	-5.9	-10.5	-6.2	-4.5	24.5	25.2	28.6	20.1	4.0
화 학	883.8	-1.3	-3.0	-1.2	2.8	15.7	12.4	18.7	16.2	1.2
철 강	454.3	-2.2	-6.3	-1.5	-1.9	13.3	5.9	14.2	20.8	2.4
반도체	1,285.6	11.7	22.7	12.6	21.9	27.2	29.7	26.8	25.5	8.6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0.8	-3.2	9.2	1.8	17.2	10.2	-2.0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2	28.7	41.7	52.5	53.3	21.5	-8.9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9	9.8	17.0	32.5	32.4	40.1	26.0	-4.8
기계, 장비	819.2	-5.9	3.6	3.7	9.4	17.5	17.6	19.3	15.9	1.1
자동차	981.6	-0.5	-10.0	-2.9	11.2	24.5	20.0	31.5	23.5	6.4
조 선	206.3	17.6	8.6	-1.3	-15.6	-17.3	-13.8	-15.8	-21.9	-4.1
- 중 공 업	-	0.7	0.6	0.6	5.5	14.7	13.7	16.7	13.8	2.8
- 경 공 업	-	-0.6	-4.0	-2.9	-0.3	7.5	9.0	8.8	4.9	0.6
- 제조업ICT	-	4.8	11.9	8.5	14.0	19.7	22.5	21.6	15.6	3.1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8.4	106.2	110.5	105.9	110.8	109.5	109.5	113.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2.0	2.2	5.7	8.3	4.2	4.9	1.6
도소매	211.3	-0.4	-2.6	-1.8	3.1	5.4	9.3	3.1	3.9	1.6
운수및창고	90.3	0.0	-14.2	-13.1	-2.4	11.0	14.9	8.9	9.4	1.0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24.6	-13.1	1.5	8.3	-2.1	-0.5	2.7
정보통신	79.9	3.6	1.5	0.0	2.0	3.8	2.9	2.9	5.4	1.0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8.7	15.0	9.7	11.7	7.4	10.1	3.2
부동산	31.8	0.5	5.5	0.5	-2.6	5.7	8.8	5.5	3.1	0.0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0.3	2.1	4.2	6.9	2.7	3.2	1.9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11.7	-3.8	5.3	5.5	5.3	5.5	0.2
교 육	106.0	-0.4	-4.7	-3.9	0.2	2.9	4.7	3.3	0.8	0.3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4	0.8	3.0	2.4	3.1	3.7	0.8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33.3	-18.0	20.6	34.9	18.3	11.7	4.8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10.4	-1.8	0.3	8.0	-3.6	-2.4	2.2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2.3	0.5	6.1	6.6	6.3	5.2	-1.3
- ICT서비스업	-	3.5	4.9	3.4	4.3	4.5	4.4	3.6	5.3	7.5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7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0% 증가

○ 지난 7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의 취업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하락세(2.2% → 2.0%)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회복(-0.2% → 0.1%)
-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축소(1.0% → 0.7%)되고, SOC·기타서비스의 취업자도 3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2.7% → 2.5%)
-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폭도 현저히 축소(7.0% → 4.6%)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2.7% → -3.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7.6% → 4.9%)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에도,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9% → 8.3%)과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8.7% → 9.9%), 교육서비스(1.2% → 1.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6.1% → 6.5%)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 규모 역시 확대(3.9% → 4.2%)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3%로 전월보다 하락(2020.8월 이후 최저치)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산 업	27,123	26,904	26.952	26,369	27,467	26,923	27,214	27,550	27,637	27,648
전년동기비	1.1	-0.8	-1.6	-1.4	2.3	1.2	2.5	2.3	2.2	2.0
농림·어업	4.1	3.6	2.4	-0.2	0.2	-1.8	-0.2	-0.2	1.0	0.7
제 조 업	-1.8	-1.2	-2.4	-0.6	0.1	-0.3	0.2	0.4	-0.2	0.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1.7	2.9	1.7	3.1	2.9	2.7	2.5
건 설 업	-0.7	-0.2	2.2	1.7	7.0	4.7	7.3	6.6	7.0	4.6
도소매·음식숙박업	0.0	-5.3	-7.0	-6.9	-2.4	-3.5	-2.2	-2.3	-2.7	-3.5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0.3	1.8	5.2	3.9	5.5	4.4	5.8	6.2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5	0.9	0.2	-0.4	4.3	3.3	4.5	4.6	3.9	4.2
실 업 률 (계절조정, %)	3.8	4.0	4.3	4.4	3.7	3.9	3.7	3.8	3.7	3.3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7월 수출 29.6% 증가, 수입 38.1% 증가, 무역수지 흑자 18억 달러

○ 지난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9.6% 증가한 554억 달러, 수입은 38.1% 증가한 53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여건의 개선과 함께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석유 관련 품목에서 대폭적인 증가세가 이어지는 데다,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이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약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

- 수입도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차산품 수입이 큰 폭 증가한 데다, 국내경기 회복과 함께 중간재와 자본재, 소비재 등의 수입이 동반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4.0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91.6% 상승한 반면에, 도입물량이 9.8%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은 72.7% 증가한 약 58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수 출	5,422 (-10.4)	5,128 (-5.4)	1,419 (4.1)	1,464 (12.5)	1,568 (42.1)	537 (16.3)	512 (41.2)	507 (45.6)	548 (39.8)	554 (29.6)
수 입	5,033 (-6.0)	4,676 (-7.1)	1,237 (-1.7)	1,363 (12.1)	1,490 (37.5)	496 (18.7)	508 (33.9)	478 (38.0)	504 (40.7)	537 (38.1)
무역수지	389	452	182	102	78	41	4	29	45	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13개 주력 품목 수출 동반 증가, 11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

○ **반도체** : 신규 CPU 출시에 따른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로 D램 등 메모리 주문 확대가 본격화되고, 모바일 시장에서의 견조한 수요 흐름과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데다, 친환경차·SUV의 수출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對 중동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동차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인도 내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완화되는 데다, 국내 기업들의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

○ **선박류** : 해운 시황이 개선되면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점차 증가하고, 특히 지난 7월에는 선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LNG선의 다수 통관이 진행됨에 따라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국내 LCD 생산 감축에 따른 출하량 감소 영향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LCD 단가 상승과 OLED를 장착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확대에 따른 OLED 수출 등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한 우리 기업들의 출고가 인하 등 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수출도 9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국내 공급 부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강세와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으로 인한 높은 수출단가 유지, 건설·자동차 등 전반산업 경기가 크게 개선되면서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의류, 자동차 등 전방산업들의 업황이 개선되고, 중국산 일부 소재에 대한 제재 영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 미국과 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제품** : 배럴당 65~75달러 범위의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유가 수준이 유지되면서 수출단가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석유 수요 역시 점차 회복됨에 따라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화학**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 자재와 관련된 합성수지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용 라텍스와 타이어 등 합성고무 수요 역시 꾸준한

데다,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에 따른 공급 능력 확대로 7개월 연속 증가세

○ **일반기계** : IT기기 생산과 관련된 광학기기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데다,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로 선진권과 신흥권으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해외 공장 가동의 일부 차질로 인해 국내 생산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EU 등지에서의 경기 회복세,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OLED TV 시장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재택근무 등으로 소비자용 SSD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 재고 소진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기업용 수요 확대, 낸드플레시 적층 등 기술진보에 따른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자동차	5.3	-13.1	1.1	31.5	74.8	15.2	73.4	93.7	62.5	12.3
자동차부품	-2.5	-17.3	3.8	5.6	123.1	12.5	99.9	182.1	108.0	35.0
선박류	-5.2	-2.0	32.1	28.3	11.9	62.8	14.4	-15.0	41.3	9.3
일반기계	-1.9	-8.9	-5.1	-1.4	21.2	6.1	17.0	25.7	21.3	18.4
철 강	-8.6	-14.5	-6.5	7.5	50.7	12.9	38.9	62.9	51.6	41.5
석유화학	-14.8	-16.4	-7.7	26.5	81.0	47.8	82.4	93.8	68.7	59.6
석유제품	-12.2	-40.6	-44.7	-16.6	112.0	19.1	99.9	169.1	82.9	73.0
섬 유	-8.0	-13.3	-6.6	-8.3	46.0	9.0	46.5	57.1	36.4	17.6
가 전	-3.8	0.7	19.2	15.8	66.5	18.0	69.3	89.3	47.5	29.7
무선통신기기	-17.6	-6.4	11.9	21.6	38.5	5.8	79.7	41.2	3.4	5.0
컴퓨터	-20.6	57.2	8.5	2.8	8.9	6.9	1.6	7.5	16.5	26.4
반도체	-25.9	5.6	18.7	14.0	29.7	8.6	30.2	24.5	34.4	39.6
디스플레이	-17.0	-12.2	17.8	16.3	36.0	-1.1	43.5	38.6	28.2	38.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현황 및 경쟁 구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1.8.6일)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

○ LCD(Liquid Crystal Display)를 대체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니LED, 마이크로LED 등이 경쟁기술로 부상

- **(OLED)** OLED는 LCD 대비 선명한 화질, 얇은 두께, 다양한 형태(폴더블 등) 구현 등이 장점으로 스마트폰과 TV를 중심으로 LCD를 대체
- **(미니LED)** LCD의 진화된 기술로서 기존 LCD 패널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칩보다 작은 LED칩을 대량으로 탑재하여 기존 LCD 대비 얇은 두께로 보다 개선된 명암비(화질)를 구현
- **(마이크로LED)** 초소형 LED를 발광재료로 사용하여 유기물을 사용하는 OLED의 단점을 보완 가능하며, 기술적으로 대형화가 쉬워 초대형 TV, 사이니지(광고판) 중심으로 도입 추진

○ 미니LED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OLED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고속 성장하나, 마이크로LED는 경제성 문제 등으로 대중화까지 장시간 소요가 예상

- 주요 수요 기업들은 OLED가 LCD 대비 가격이 높고,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OLED 공급망의 성숙시까지 미니LED 탑재를 추진
- 마이크로LED는 기술개발 단계로 높은 가격이 대중화에 장애요인

□ 주요 수요처별 전망

○ **(TV)**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탑재한 패널의 비중이 2021년 7%에서 2025년 23%로 높아지고, 특히 2025년까지는 미니LED TV 패널 출하량이 OLED TV 패널 출하량보다 빠르게 성장 전망

- **(OLED TV 패널)** 전세계 출하량이 2020~25년에 연평균 22% 성장하나, 높은 가격과 생산능력 제약 등으로 비중은 2025년 4.4%로 예상
- **(미니LED TV 패널)** 전세계 출하량이 2020~25년 5,200만대로 연평균 50% 성장하면서 비중은 2021년 2%에서 2025년 19%로 현저한 확대 전망
- **(마이크로LED TV)** 패널 출하량은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나, 높은 가격 등으로 75인치 이상 초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틈새시장 형성

○ **(스마트폰)** OLED가 우수한 명암비, 다양한 형태 구현 등으로 주류 기술로 부상하면서 OLED 탑재율이 2021년 37%에서 2025년 42%로 확대 전망

-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우에 아이폰의 OLED 탑재 본격화,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 등 고가폰에서 중저가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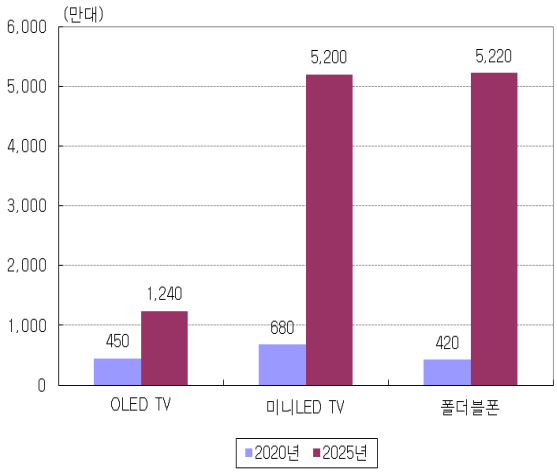
OLED 패널 탑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5G폰 출시 증가, 폴더블폰 성장 등도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을 촉진

○ **(IT기기)** OLED가 선점한 스마트폰 패널 시장과 달리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등의 패널 시장은 OLED와 미니LED가 경쟁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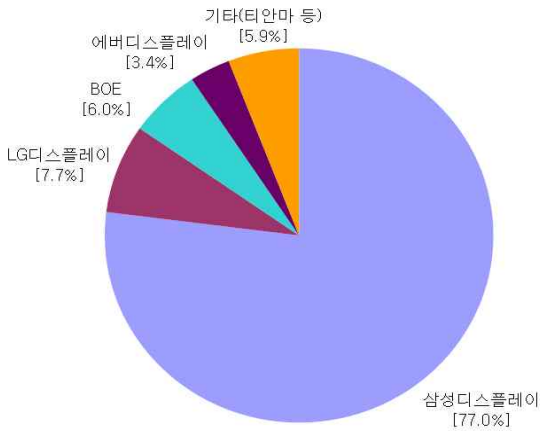
- 애플은 2019년 32인치 미니LED 모니터를 출시했으며, 2021년에는 태블릿·노트북에 미니LED 패널을, 2022~2023년에 OLED 패널을 탑재 예상
-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 노트북용 OLED 패널 탑재 본격화
- IT기기용 패널 시장에서 OLED 비중은 지난 2020년에 0.7%로 매우 미미했으나, 삼성디스플레이의 IT기기용 OLED 패널 사업 강화, 주요 세트업체들의 프리미엄 라인 강화 등으로 점차 확대 전망

< 수요처별 패널 출하량 전망 >



자료 : 옴디아.

< 스마트폰용 OLED 점유율 전망('21) >



자료 : 옴디아.

□ 종합 평가

○ 한국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OLED에 집중하는 가운데 주요 세트업체가 미니LED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OLED-미니LED 경쟁이 본격화

- 미니LED는 LCD에서 OLED로의 전환 과도기 동안에 고속 성장이 예상되며,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우에 주류 기술로도 부상할 가능성

○ 미니LED의 성장과 중국기업들의 OLED 투자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의 OLED 사업은 성장 지속이 예상

- OLED TV는 프리미엄 TV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미니LED TV 성장으로 추가적인 성장세가 다소 더딜 수 있으나, 당분간은 성장세 유지
- 스마트폰용 OLED는 중국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와 주요 스마트폰 기업의 공급사 선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이 생산능력이나 기술력 등의 우위로 인해 당분간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8.23)	(8.24)	(8.25)	(8.26)	(8.27)
	8월 소비자동향조사	6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7월 내구재수주(잠)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	2I.2분기 실질GDP (수 정 치) 금융통화위원회	7월 무역수지(수) 7월 개인소비
(8.30)	(8.31)	(9.1)	(9.2)	(9.3)
7월 소매판매(잠) 8월 경제체감지수	7월 산업생산(잠) 7월 실 업 률 8월 소비자물가(예) 8월 소비자신뢰지수 7월 산업활동동향	7월 실 업 률 8월 ISM 제조업지수 8월 수출입통계	7월 무역수지 8월 소비자물가 2I.2분기 실질GDP (잠 정 치)	7월 소매판매 8월 ISM 비제조업지수 8월 고용보고서
(9.6)	(9.7)	(9.8)	(9.9)	(9.10)
	8월 수출입통계 7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2I.2분기 실질GDP (확 정 치)	2I.2분기 실질GDP (수 정 치)	8월 소비자물가 ECB 통화정책회의	
(9.13)	(9.14)	(9.15)	(9.16)	(9.17)
	7월 산업생산(수) 8월 소비자물가	8월 산업생산 8월 소매판매 8월 고정투자 7월 기계수주 7월 소매판매(수) 7월 산업생산 8월 산업생산 8월 고용동향	8월 무역수지(잠) 7월 수출입통계 8월 소매판매	8월 소비자물가(수)